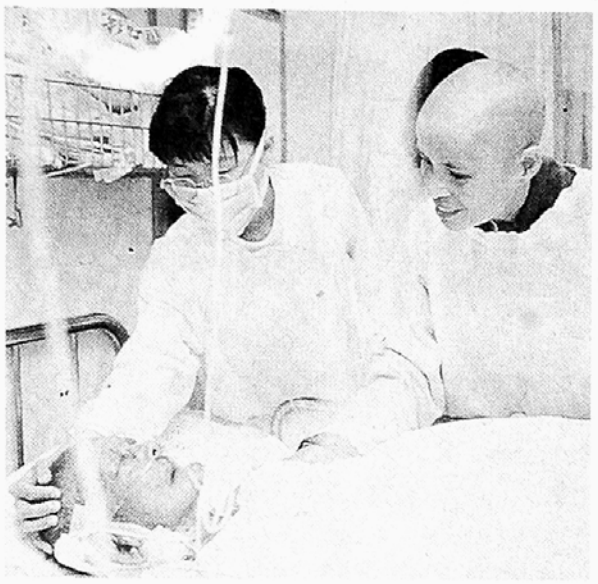

◇증엄스님이 무의탁노인 환자를 위로하고 있다(왼쪽사진). 1986년 8월 개원된 자제병원 전경. 총면적이 1만7천8백여평에 달하는 자제병원에는 7백50여개의 병상이 마련됐다.

지구촌 **실천불교 운동가** 〈6〉

대만 증엄스님

"병든사람에겐 천수관음보살"

'5전절약운동' 전개 66년 자제공덕회 설립
종합병원 설립 무료진료·위탁금제 폐지
96년 정신질환자·장애자 재활병원도 개원
구휼기금 조성 국제재난 구제사업 전개
대학 3곳 설립…의학·불교학등 발전 기여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도 자비심을 베풀어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이루자'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설립된 대만의 자제공덕회(慈濟功德會, 대표 증엄스님)는 성공적인 활동을 통해 세계 불교계로부터 불교사회복지의 모범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37년에 대만에서 출생한 증엄비구니스님은 23세에 이르러 부모와 사별(死別)하고 출가했다. 스님이 사회복지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만의 고산지역인 후안에서 수행을 하고 있을 당시 스님에게 자주 법문을 청해 듣던 신도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병문안를 갔다. 그런데 스님은 이곳에서 응급환자가 수술중에 필요한 수혈혈액이 부족해 할수없이 업혀 돌아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 광경을 처연하게 바라보는 스님에게 한 원주민 여인네가 "고산지역인 이곳까지 혈액과 의약품을 운반하는데 꼬박 10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병원은 언제나 혈액과 의약품이 부족합니다"라고 설명해줬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위하 일정한 '위탁금'을 환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데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응급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증엄스님은 이를 계기로 "사람들이 빈곤해 지면 부처님 진리는 마음 한 귀퉁이조차 자리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이 고통받는 인간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천개의 손길을 뻗쳤듯이 1966년 30여명의 여성신자들과 함께 '자제(慈濟)재단'을 설립했다.

자제재단은 매일 5전씩 절약하는 것에서부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부자를 교육을 통해 교화시키는데 주력했다. '5전 절약운동'은 당시 후안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었고 재단기금을 조성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같은해 자제재단은 자제공덕회로 전환됐다.

증엄스님은 자제공덕회 활동을 "자선·의료·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서로 결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부상조하며 널리 중생의 고난에 찬 소리를 들으면 즉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자제공덕회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매일같이 방문해 봉사하는 등 빈민구호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껏 자제공덕회가 전개한 구호활동에 혜택을 입은 사람만도 대만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68만여명에 이른다.

"인간의 여러 괴로움중에 병고가 가장 고통스럽다. 무엇보다도 가난에서 병이 생긴다"는 사실을 지금껏 자제공덕회 활동을 통해 충분히 알게된 증엄스님은 1979년에 의료시설이 부족한 대만의 동부지역에 자제병원 설립을 서원해 1986년 드디어 개원했다.

자제병원은 무료진료뿐만 아니라 환자가 수술받기 전에 일정한 금액을 위탁하는 '위탁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환자에게 의료혜택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까지 배려해 병들고 가난한 환자들까지 편안히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성장했다.

개원 초기 1개 병동에 1백개 의료침대를 갖추고 출발한 자제병원은 현재 25개 병동에 7백50여개 의료침대를 갖추고 매일 1천5백여명의 환자에게 의술을 베푸는 거대 종합병원으로 발전했다.

대만 사회는 "자제병원이 전근대적이었던 대만의 병원체제를 개선하고 권위적이기만 했던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며 자제병원의 성과를 평가하며 큰 박수를 보냈다. 자제공덕회의 활동은 자제병원에서 멈추질 않았다. 지난 1996년 대만 남부지역에 새롭게 설립한 '재활병원'은 총 1천여개의 의료침대를 갖추고 정신질환자와 신체장애자들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증엄스님은 이밖에도 "보살의 지혜로 청소년을 교육하고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를 가르치겠다"며 자제간호전문대학(1989년) 자제의과대학(1992년) 자제종합대학교(1994년) 등을 연이어 설립했다. 이곳을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의학·간호·불교학·예술 등의 장학금을 조성해 매학기 학자금을 지급해 주는 등 교육사업에도 앞장섰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혜택받은 장학금은 총 4억2천498만원에 이른다.

자제공덕회 활동은 대만지역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지난 91년 중국의 화동지역에서 2억2천만여명이 대홍수의 재난을 만났을 때 '중점(重點)'과 '직접(直接)'이라는 원칙하에 수재민 구제에 적극 나섰다. 이후 자제공덕회는 '국제구휼기금'을 조성해 해외 재난구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92년 구소련연방의 지원을 받지 않고 겨울을 보내야 했던 몽골에게 음식·연료·의료 등을 지원했고 1993년 이디오피아에서 전쟁과 가뭄을 당한 난민들을 지원했다.

또한 르완다 의료품지원, 홍수로 집을 잃은 네팔인들에게 1천8백세대의 집을 신축해 주었고 1994년에는 가뭄에 시달리는 캄보디아도 지원했다.

이밖에도 대만에서 공해를 추방하기 위해 '쓰레기 재활 운동'과 자연보호캠페인까지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자제공덕회가 지금껏 재활한 쓰레기를 일렬로 나열하면 장장 18만킬로미터에 이르며 총 3백66만 그루의 나무를 보호하는 계가를 올렸다.

지난 31년간 대만뿐 아니라 세계각국에서 자제공덕회를 통해 각종 사회복지활동을 펼쳐온 증엄스님은 "자신을 위하여 안락을 찾지 말고 오직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함을 얻도록 할 것"이라며 매일같이 제자들을 북돋우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오로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에 온 몸을 바치고 있다.

오종욱 기자

나의 수행일기

황청원 〈시인〉

"마음 낮추는 법 내것으로 만들자"

환속후 농가에서의 참회 1년 '나를 지켜준 시간'

마음 한켠에 기억 하나 일어선다. 먼 길에 깔려있는 새벽안개처럼 아득함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그렇게 깊이 각인되어 나의 생 전체를 뒤흔들던 순간들이 이젠 답답함으로 돌아 앉아서인지도 모른다.

아, 벌써 십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내가 택했던 수행자생활의 열일곱해가 채워지는 그 무렵, 캄캄한 바람이 내면 곳곳을 핥아댔었다. 그것은 어쩌면 내 삶에 대한, 아니 수행자로 지냈던 시간에 대한 의문부호같은 것이었다.

그 의문부호에 대한 답을 얻어내기 위해 나는 결정을 서둘렀다. 인연 맺고 살던 곳이며, 얼굴 마주하던 이들과의 결별을 통해 새로운 세계속으로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겨 놓으려는 준비의 시작이었다고나 할까. 아무튼 엄청난 변화가 나의 중심에서 일어났다.

홀연한 떠남이었다. 누구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알지 못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자락에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마을을 지난 길 끝이 닿은 곳엔 바로 내가 찾던 농가가 보였다. 언젠가 나그네로 살던때 기차에서 만남을 이뤄 하룻밤 지냈던 집이 있다. 그 인연으로 내가 농가의 새 주인이 되었다.

한 해쯤 빈 채였던 농가의 마당에는 잡풀들이 무성했다. 집 안과 밖은 내 손길을 참으로 부지런하게 만들었다. 살만큼 될 때까지는 거의 한달이란 시간이 지난 뒤였다. 어느새 삭발했던 머리칼은 풋밤송이처럼 자랐고, 차림새는 자유로워져 있었다. 그러나 오랜동안 몸에 배인 수행자생활에서는 쉽게 풀려날 수가 없었다. 실은 그것에서도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지극했었다.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느끼고 말았다. 얽매임에도, 풀려남도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마음 내키면 마루 끝에 앉아 가부좌를 하기도 하고, 골방에 모신 조그마한 돌부처님께 절을 올리기도 하고, 밭이랑에 잡풀들을 뽑으며 경전 말씀을 외우기도 했다.

가부좌를 하고 앉았을때는 내 안으로 산이 스며오고 또 나무들이 빼곡히 차올랐다. 부처님께 절을 올릴때는 무릎에 멍이 비치고 또 긴 향내에 목젖이 무감각해졌다. 경전 말씀 담으면 신심은 파도처럼 일렁였다. 그러다가 이내 적요함이 찾아왔다. 심지어 낮잠을 자고, 산에 오르고, 마을 아이들과 놀아도 그 적요함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적요함, 그것은 내 마음의 고요였다. 선사가 얻은 큰 깨달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풋풋한 깨달음으로 가는 걸음마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 고요를 맛볼 수 있다는 것 만으로 마음은 차츰 그 곳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럴수록 좀더 반듯하지 못했던 수행자로서의 생활들이 책장처럼 자꾸 넘겨지고 넘겨지는 것이 아닌가. 문득 참회라는 말이 떠올랐다. 고요를 누리는 희희로움도 중요하지만 티끌같은 오류라도 다 털어내는 참회의 시간이 오히려 내겐 큰 소중함인 것 같았다. 내 길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마음 낮추는 법부터 내것으로 만들어 나가려했다. 그러나 어찌 그 연이 가볍게 이루어질 수 있으랴. 하물며 미물들에게까지 자신을 낮추겠다고 했던 스스로의 약속을 만들어 가기란 목마름에 시달리며 시원한 샘물 앞을 그냥 지나쳐 가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계절이 몇 번 지나서야 내 마음은 낮은 곳 근처를 배회하는 듯 했었다. 물론 그 마음을 여여하게 매어 둔다는 일엔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귀한 느낌이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견고한 수행법이 될 거라는 예감은 할 수 있었다. 이제 생각해 보면 한해가 다 채워지지 않은 농가에서의 시간들, 정말 그것은 지금도 내 보잘 것 없는 수행법의 뼈를 이루며 나를 지탱해 준다. 비록 그 누구에게도 건네지 못할 부끄러운 수행법이지만 나 스스로를 늘 깨우쳐 주는 목숨같은 것으로 믿고 싶다.

황토와 약쑥의 신비하고도 뛰어난 약성성분이 내열탕기와 황토좌대에서 발생되는 원적외선 열과 함께 뜨거운 수증기로 합쳐져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방출되게 함으로써 인체 조직파괴 없이 피공(皮孔)에 가장 효율적으로 침투하여 약리작용을 일으키도록 구조가 설계된 …

가정용 전통 황토 쑥 좌욕기

⊙ 전통 황토·쑥좌욕기는 좌욕기능외에 다용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좌욕효능 〈2〉 미용효능

● 여성의 온갖 자궁병질환 및 변비, 치질 배군살등
● 남성의 전립선 질환 및 정력감퇴 빈뇨, 전뇨, 소변곤란, 배뇨통증
〈1日 20분~30분, 좌욕을 하십시오〉

●얼굴피부속 노폐물제거피부가 뽀얗게 됨
●피부노화방지 회복, 재생
●피부탄력유지 윤택뛰어난 피부 맛사지 효과
●기미, 여드름 검버섯등의 예방 및 제거
●비염, 축농증, 기관지염, 편도선, 천식, 폐질환, 후두염등
〈1日10분~15분 얼굴피부찜질을 하십시오〉

〈황토로 만든 도자기 좌대〉
· 실용신안등록원 제96-23062호
· 의장등록출원 제96-16268호

●규격 높이 27cm×직경 33cm
●전기를 사용치 않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전자파를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강화약쑥 100일분 +황토가루 100일분 포함
●좌욕기 사용시 사진과 같은 침대를 이용하시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전통 황토·쑥 좌욕기는 현재 사용하고 계신분들이 그 효능을 인정하여 주위에 적극 권하는 현대인의 가정필수품입니다.

보급가
전통 황토·쑥 좌욕기 : ₩ 270,000
침 대 (별도선택사양) : ₩ 90,000

⊙ 전통 황토·쑥좌욕기를 사용시 질병치료에 탁월한 치유효능이 있다는 근거는?

●「동의보감 탕액편권3」「본초강목」「향약집성방」「신해경」 등의 옛의서에 황토와 약쑥의 탁월한 질병치료 작용과 효능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씌여있는 기록과 단군이래 수천년동안 선조들이 황토와 약쑥을 이용하여 온갖 질병을 치료해온 경험으로 축적해 놓은 민간요법을 근거한 것으로, 황토와 약쑥이 인체에 좋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황토가루와 약쑥을 염분(소금)과 함께 펄펄 끓여서 황토좌대 안에 넣고 그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로 아픈부위를 집중적으로 쬐면 아래와 같은 질병치료에 큰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뜨거운 증기 찜질효능 〈각 질환 부위별 치료방법 : 아픈곳을 좌대위 구멍에 대고 찜질〉

①〈허리요통, 척추질환, 디스크〉 ②〈어깨, 목, 디스크, 통증, 근육뭉침, 결림, 담등의 질환〉 ③〈말초신경통, 마비, 시력증상, 힘줄 늘어남, 근육통, 타박상〉
④〈다리 무릎, 관절염, 신경통〉 ⑤〈복부냉증, 긴기능질환〉 ⑥〈손, 발비닥 무좀, 습진, 피부각질, 수족냉증질환〉

※ 체험치료사례모음 : 본제품을 사용하시어 효과를 보신분들께서는 본회로 치료사례를 보내주시면 1년분 약쑥과 황토가루를 보내드립니다.(주소, 성명, 전화번호, 질병종류, 치료기간 기록)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자매품

"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보급가격: ₩150,000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군·구지회 미개설지역·방문 및 전화상담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본회 : (지회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 보문포교원(원장 :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서울(02) 강남 : 553-0261~2 강북 : 902-2430 성북 : 942-6430 반포 : 597-7581 송 파 : 417-8922 종 로 : 747-7033 영등포 : 782-6080 구로·금천 : 864-0199
경기지역 : 평택 : (0333)856-6856 용인 : (0335)36-4294 부산(051) : 부산진구 : 803-0108 해운대구 : 702-2621 분당 : (0347)66-0049 과천 : (02)503-9352 연제구 : 864-2900
대구(053) 남구 : 474-2828 대전(042) 중구 : 222-4936 동구 : 253-6446 달서구 : 635-9734 서 구 : 534-4211 둔 산 : 487-7245
경남지역 마산 : (0551)23-9016 김해 : (0525)24-4871 진주 : (0591)43-4655
울산 : (0522)74-7536 울산중구 : (0522)93-1973 울주구 : (0522)85-1284
경북지역 포항 : (0562)82-3155~6 안동 : (0571)53-0229
광주(062) 동구 : 228-8544 서구 : 523-1540
강원도 강릉 : (0391)645-2117
충남지역 공주 : (0416)856-6856 예산 : (0458)33-3208 서산 : (0455)63-0457 아산 : (0418)43-3510
충북지역 청 주 : (0431)273-2684 제 천 : (0443)46-3023
제주도(064) 제주시 : 22-3324